

번호 04-3

제 목	국문	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Job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doctor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윤식 ¹ , 이상원 ² , 김신 ² , 천병렬 ² , 예민해 ² 1.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2.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Kang Yune Sik ¹ , Lee Sang Won ² , Kam Sin ² , Chun Byung Yeol ² , Yeh Min Hae ² 1.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 Univ. 2. Dept. of Prev. Med.,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 Univ.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1월				

1. 연구 목적

의사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주로 업무량이나 업무 상의 판단, 환자관계 등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의료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이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의료제공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어떤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구경북지역의 의사 934명(개원의 540명, 봉직의 105명, 전공의 2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하여 Wolfgang 등이 개발한 HPSI 및 여타의 연구를 참조하여 3개요인 9 문항의 직무스트레스 설문지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변수로는 성, 연령, 결혼유무를 측정하였고, 직업관련특성으로는 전공계열, 일일평균근무시간, 주당평균당직일을, 지위인식에는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및 의사들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었고, 의사들의 지위전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전체평균이 개원의 3.30, 봉직의 3.41, 전공의 3.80으로 전공의들이 가장 높았다. 개원들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여자일수록, 일일평균근무시간 및 당직일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의사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봉직의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평균근무시간 및 당직일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전공의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남자일수록, 근무시간 및 당직일이 많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및 의사들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4. 고찰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 다루기 힘들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환자, 임상적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 등의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세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점수를 도이고 있었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임상적 판단/책임감 요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공의들은 업무요인 점수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을 시사함과 더불어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원의 및 봉직의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떨하였는데, 이것은 젊은 의사들일수록 사회적인 압력이나 의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소비자들의 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이러한 조건들이 높은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모두에서 업무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열악한 근무 조건이 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개원의 및 전공의들은 지위인식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업무스트레스가 많아서 의사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나쁠 경우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